

[새봄 기증 탐방]

G331 ‘동풍’ 타고 ‘봄노래’ 부르는 변강마을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의 변화로 보는 향촌 진흥의 발걸음



상쾌한 공기와 목가적인 풍경이 고요한 힐링을 안겨주는 북흥촌 (지난해 9월 촬영)

수많은 자가운전 여행 애호가들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각광받는 G331 길립 구간은 그 아름다운 풍경으로 이미 입소문을 탔다. 중국 북방에 구불구불 뻗어있는 이 변경 국도는 무수한 절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깊은 역사적 기억과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담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개통된 이래, 길림성은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면서 변경(沿边) 개방 관광대동로 건설을 가속화하고 교통과 관광 자원의 상호 보완 및 협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며 흥변부민, 향촌 진흥과 문화관광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경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엔진을 힘차게 가동하고 있다.

춘삼월에 다시 찾은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 또한 G331 반사리익과 향촌 진흥 정책의 바람을 타고 새로운 한해의 봄을 열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가을에 이 촌을 찾았을 때 들었던 구상들이 한창 차곡차곡 진행중에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이곳저곳에서 꽃을 피우려 ‘꽃봉오리’들이 고개를 내

밀며 희망의 ‘봄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마을 어구에 들어서면 상쾌한 시골 공기가 1차적으로 마음에 고요한 힐링을 불러온다면 목가적 풍경과 도시적 느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골 풍치가 시각을 안온하게 자극하며 도시의 북적북적함과는 거리가 먼 정적인 편안함을 전달해 안겨준다.

작년에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미 여름부터 영업을 시작했던 ‘G331’커피숍은 그사이 외지 관광객들을 맞으며 지역문화 알리기에 일조했다. 그리고 작년 국경절을 목표로 건설중에 있었던 공급판매합작사민박 역시 건설을 마치고 지난해 국경절 연휴에 대외에 개방했다고 한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객실 예약이 폭발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다.

올해는 특별히 커피숍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성된 ‘실내 새우 양식 온실’이 눈에 띄었다. 이는 삼합진과 북흥촌, 그리고 춘주제 기업과 서부계획 지원자들이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 구축한 프로젝트이다. 4명의 ‘00 후’ 대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 이 프로젝트는 ‘뜨락 경제를 활성화시켜 향촌 관광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양식장을 중심으로 새우낙시 체험, 친환경 재배 남새 따기, 야외 레스토랑 등을 접목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연변불함산사문화관광유한회사 책임자 송악은 소개했다.

2022년, 북흥촌은 투자유치를 통해 길림성불함산사문화관광유한회사의 자회사인 연변불함산사문화관광유한회사를 유치했다. 기존 주택에 대한 개조 및 업그레이드와 증축, 그리고 조선족 특색 민박, 생태농작물 재배, 가족체험, 과일남새 따기 체험, 건강 요양지 등을 일체화한 종합형 관광 대상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회사의 책임자는 회사는 마을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마을은 오래 동안 방치된 ‘빈집’과 토지자원으로 ‘주주’가 되는데 우리가 잘할수록 마을 주민들의 배당금도 늘어난다. 즉 민간 자본이 ‘신농촌인’ 신분으로 합작사와 함께 향촌을 건설함으로써 농촌 유휴 자원을 활성화하고 촌진제경제를 장

대시키는 합작 모식이라고 소개했다.

이 마을에는 부동한 시기에 지어진 ‘보물’과도 같은 전통 가옥이 수십채에 달한다. 커피숍으로 쓰인 가옥 출입 구에도 ‘중국전통마을’이라고 씌어진 간판에 호주 이름과 함께 가옥 년한을 ‘1921부터 현재’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하여 이 회사에서는 가옥 개조를 함에 있어 현유 가옥의 기초에서 개조와 확충을 진행하고 그중 건축물은 ‘미약하게 개조, 정밀하게 향상’시키는 예술적인 향촌 건설 수법을 취했다. 옛것과 새것을 결합하는 설계 리념에 따라 ‘기억을 따르고 흔적을 찾’는 방식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했는데 기존 건축군을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산업을 발굴하는 등 당시 조선족 민속문화를 전파하는 걸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과 관광업 발전을 이끌었던 것이다.

거기에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 전통 조선족 복식, 조선족 전통 가옥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캐릭터들과 다양한 문화창의제품들이 적재적소에 전시되어 북흥촌은 전통적인 조선족 촌락과 비교해 볼 때 더욱 ‘유행’을 강조한 느낌이었다. 이처럼 전통문화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예술마을’로의 변모는 북흥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계절 얼지 않는 샘물(泉水)이 마을에 흐르고 백년가옥이 잘 보존되어있는 중국전통마을, ‘산 높고 물 맑은 고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북흥촌은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가꿔 나가면서 널리 알리고 싶은 ‘자랑거리’도 참 많다. 그러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을 어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조성된다는 G331 길립 구간 휴게소 대상이다. 이날도 공사 현장을 한창 작업을 다그치고 있는 모습들로 분주했다.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당지부 서기 김진수는 “휴게소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북흥촌을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교통도 원활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도 있지 않겠나?”며 속마음을 내비쳤다.

거기에 서부계획 지원자들의 ‘인터넷 홍보’ 플랫폼도 이미 스타트를 뒀다. 대학생 자원봉사 서부계획 ‘변

강 수호’ 프로젝트의 부름에 응답해 북흥촌에 오게 된 정문정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어떻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북흥촌, 나아가 삼합진의 아름다운 풍광과 송이버섯, 임산물 같은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까?’ 하는 것이다.

“일단 먼저 라이브 계정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동료들과 함께 이런 저런 영상들을 많이 찍으려 다니고 또 수시로 제작해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대학교 전업도 마친 이와 관련된 분야라 정문정은 자신의 특장을 한껏 활용하고 있다. 라이브 방송을 직접 해본 적은 한번도 없지만 과감히 BJ로 변신해 카메라 앞에 섰다.

“10여명의 자원자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다 보니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편이죠. 각각의 전업을 심분 발휘해 마음껏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직업 출연하고 찍고 만들고 배경음악과 해설까지 같이 제작했다며 보여준 북흥촌의 홍보 영상을 통해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북흥촌 주재 제1서기 장신우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전자상거래 쪽으로 북흥촌은 계속하여 ‘인터넷+’ 모델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주변 변경

촌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변경촌의 특색 농산물과 관광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판매 경로를 확대함과 더불어 브랜드 영향력을 높여가면서 함께 북흥촌 향촌 진흥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려나.”고 그는 말했다.

올해로 11번째 삼합진당위 서기 자리를 지켜온 박오범 또한 “관광 로선 풍경대 연선에 위치한 삼합진은 이러한 우세들을 활용하고 현재 갖고 있는 관광업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하면서 발전을 다그쳐 G331이 경유하는 삼합 구간을 가장 아름다운 변경 명품 관광 로선으로 발돋움시켜보려나.”는 다부진 욕심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다.

취재를 통해 G331 국도 길립 구간은 단순히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문화관광의 연결고리가 연선 마을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다. G331의 ‘동풍’을 타고 ‘예술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북흥촌은 자기만의 발전 경로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길에서의 길림성의 적극적인 탐구와 뚜렷한 성과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 김가혜
김영화 기자



BJ로 변신한 정문정(중간)은 북흥촌을 알릴 수만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모든 지혜를 동원한다.

양식장을 넘어 관광명소로, ‘00 후’들의 ‘현대판 전원일기’

—시련 딛고 꽃을 피우는 북흥촌의 청춘 리포트

룡정시 삼합진 북흥촌, 꽃샘추위가 아직도 고개를 드는 초봄이지만 마을 한켠에 자리한 ‘실내 새우 양식 온실’에서는 푸른 생명의 숨결이 넘실거리고 있다. 산서성과 내몽골 등 지역에서 찾아온 ‘00 후’ 서부계획 지원자 장지도, 왕가옥, 경비비, 왕저 등은 전통 농촌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원일기’를 하루하루 써내며 미래를 여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현대판 전원일기’는 매일같이 희망의 장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한 농업 혁신을 넘어 청춘의 열정이 빚어내는 사회적 변화의 서사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을 넘어 현대농업의 신호탄을 쏜다

지난해 북흥촌은 오랜 농업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촌간부와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깨끗한 물 자원과 토지 조건에 대한 분석을 거쳐 ‘실내 새우 양식’ 프로젝트를 그 시작으로 하는 현대농업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들은 현재의 풍부한 지하수와 평탄한 지형을 활용한 첨단 양식산업 모델을 구상했는데 특히 수질 분석과 온도 제어가 가능한 실내 양식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방 농촌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축했다.

프로젝트 초기, 이들은 농업 경험이 전무한 ‘백지상태’에서 출발했다. 모종 선별부터 사료 배합, 양식 못 설계까지 직접 발품 팔아 뛰면서 체득한 경험은 청년들에게 값진 성장의 발판으로 되었다. 농학 전공자 한명 없이 3개월간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사업 계획으로 현지 기업인 연변불함산사문화관광유한회사의 두터운 신뢰를 얻어낸 것은 그들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였다. 새우의 생체리듬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은 2주간 새우 수면 패턴을 관찰했는가 하면 매일 새벽 두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고 일어나 새우 먹이를 주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일을 반복하곤 했다.

“여기에 온 자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수온을 체크하고 새우 먹이를 주다 보면 하루가 어찌나 보람차던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던 새우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을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그들은 매일 새우의 성장을 기록하며 기술을 연구했고 정기 모임에서 실패와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양식장 한켠에 마련한 간이 탁자와 의자,



산서성에서 서부계획 지원자로 온 장지도(왼쪽)와 왕저

고급스러운 텐트와 근사한 조명등으로 장식된 실내를 둘러보노라니 미래를 향한 그들의 비전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낚은 새우를 즉석에서 요리하며 즐길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시련을 딛고 피어나는 청춘의 열정

지난해 10월, 20만마리의 새우 치어가 두개의 대형 수조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음력설 연휴 동안 령하 20도를 웃도는 찬바람이 온실의 보온 비

닐막을 찢어버리며 모든 새우가 얼어죽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고항에서 돌아와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청년들은 즉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재정비에 나섰다. 극단적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보온 시스템을 강화하고 길림농업대학 전문가의 원격 지도와 주민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3월초 6만마리의 치어를 다시 수조에 풀어놓았다.

이제 그들의 손에는 두터워진 연구자료와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고 양식장 구석에는 실시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가 늘 대기중이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실패를 딛고 또 단단해졌습니다. 이 마을에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겠다는 각오구요.”

농촌 관광의 새 지도를 그린다

이들의 꿈은 단순한 양식을 넘어 북흥촌을 찾는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데 있다. 장지도는 양식장을 중심으로 낚시체험구역, 야외 레스토랑, 문화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용했던 마을이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날을 꿈꿔봅니다. ‘새우캠프’로 농촌의 정취를 느끼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도 준비중이죠.”

서부계획 지원자들은 첨단기술과 전통의 융합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며 변경 마을에 청춘의 열정을 새기고 있다. 이들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농촌에서 써가는 생생한 현장 리포트이기도 하다.

“마을이 단순히 살아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모두가 주목하는 ‘뜨거운 도전’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장지도의 눈빛에는 오늘날도 확신이 가득하다. 춘삼월의 추위를 이겨내는 새우처럼 이들의 청춘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북흥촌의 미래에 한몫 든든히 보태고 있다.

변경의 작은 마을에서 피어난 청춘의 열정,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첨단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의 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향촌 진흥의 길임을 북흥촌의 청춘이야기로 증명해가고 있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